

이와야 사자나미의 하이가(俳画)

- 구연동화 활동 양상과 하이가의 역할에 대해서 -

김성연*
yonihime1111@gmail.com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4 겨울 |
| 2. 구연동화 활동 양상과 하이가 | 4. 오토기하이가(お伽俳画) |
| 3. 일반하이가(一般俳画) | 4.1 이습우화와 전설 |
| 3.1 봄 | 4.2 일본 옛날이야기(日本昔噺) |
| 3.2 여름 | 5. 나오며 |
| 3.3 가을 | |

主題語: 이와야 사자나미(Iwaya Sazanami), 하이진(HAIJIN), 하이쿠(HAIKU), 하이가(HAIGA), 일본 아동문학(Japanese children's literature), 구연동화(Oral Performance / Storytelling), 조선(Joscon)

1. 들어가며

아동 문학가이자 아동문화의 개척자이며 소설가이자 편집자인 동시에 저널리스트였던 이와야 사자나미(巖谷小波)¹⁾는, 하이진(俳人, 하이쿠 짓기를 취미나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화를 들려주는 구연동화 활동도 1896년, 사자나미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작했다. 37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구연동화를 하나의 예술 분야로 격상시키고, 그 자신이 평생 구연동화 활동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사자나미를 가리켜 일본 유수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은 “오늘날 어린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오토기바나시(お伽噺)의 원조, 일본에서 가장 친숙한 할아버지(1915.1.21)”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사자나미는 1933년 6월, 구연동화 여행 중 히로시마에서 쓰러져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병으로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이야기 할아버지’답게 아동들에게 동화를 들려주었다.

사자나미의 활동 영역은 일제가 강점하고 있던 당시의 조선에까지 펼쳐졌다. 『매일신보(每

* 오이타현 쿠스마치 구루시마 타케히코 연구소(大分県玖珠町久留島武彦研究所) 소장
1) 巖谷小波(1870-1933), 본명은 季雄, 이하 사자나미라고 표기.

日申報)』와 『경성일보(京城日報)』(1910년~1940년)를 조사한 결과, 조선에서의 활동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1923년에 조선을 방문한 사자나미는, 20일이라는 단기간의 방문 기간 중에 60회의 구연동화회를 개최하여 무려 6만 명에 달하는 청중을 동원했다고 하니, 100여 년 전 그가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와 화제를 몰고 다녔는지 충분히 짐작이 된다. 사자나미가 불러일으킨 구연동화 바람을 계기로 경성에 ‘조선동화보급회(朝鮮童話普及會)’가 설립될 정도로 그는 큰 방향의 중심이었다.

사자나미는 구연동화 활동과 더불어 하이쿠(俳句, 5·7·5의 음수율을 지닌 17자로 된 일본의 짧은 정형시) 활동도 동반해서 펼쳤는데, 특히 하이가(俳畫, 하이쿠를 표현한 간략한 그림)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1923년 5월에 실시한 규슈(九州) 순회공연 때에는, 하루에 많게는 6차례의 구연동화회를 개최하였으며, 가고시마시(鹿兒島市)에서는 하이가 주문이 몰려들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600장의 하이가를 그렸다. 그리고 그해 6월에 방문한 조선에서는 대구의 여관에서 3시간 동안 100장의 하이가를 그린 일이 『경성일보(京城日報)』(1923.7.20)에 대서특필되기도 하였다. 하이가 요청이 쇄도하여, 지방 구연동화 공연 일정이 잡히면 미리 하이가 주문을 받아 예약 판매 또는 현지 판매를 할 정도였다. 이러한 자료는, 조선의 많은 독자들과 재조선 일본인들이 그의 구연동화와 하이가 작품에 열광했음을 말해준다.

사자나미의 하이가(俳畫)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의문으로 인해 필자는 7년 전부터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자나미의 하이가 작품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잡지나 신문에서 찾아낸, 사자나미에 관련된 자료를 손에 쥐고 그의 행적을 탐문하며 일본 전국을 다녔다. 찾아간 집 또는 료칸, 식당,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는 사자나미의 글이나 그림 작품이 걸려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족자 속의 흘러 쓴 한자를 읽을 수도 없었고, 그제 하이쿠인지도 몰랐다. 그러던 중 한자에 그림까지 곁들여진 작품이 하나 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외국인인 필자가 봐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일본 옛날이야기를 그린 그림들도 있었다. 계절을 노래한 일반 하이가도 많았지만, 「모모타로」나 「긴타로」와 같은 일본의 옛날 이야기들을 표현한 작품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토끼와 거북이」와 같은 이솝 우화를 그린 작품이나 「날개옷 전설(羽衣伝説)」과 같은 전설을 모티브로 한 작품과도 만날 수 있었다.

현재 일본에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거의 전역에 걸쳐 43개의 사자나미 하이쿠 기념비가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사자나미가 동화 작품이나 구연동화와 함께, 하이쿠나 하이가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사자나미의 하이쿠, 하이가에 관한 연구는 전무(全無)한 현실이다.

하이쿠는 한국에도 이미 많이 소개되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하이가가 한국에

소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자나미의 하이가 작품에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의 소장품 중에서, 먼저 계절을 노래한 사자나미의 일반 하이가 작품 8점을 살펴본 뒤, 동화를 그린 하이가 즉 오토기하이가(お伽俳画)²⁾ 14점을 선별해 총 22점을 분석함으로써 사자나미의 독창적인 하이가 세계를 발견하고 그의 구연동화 활동에 있어서 ‘하이가(俳画)’라는 매체가 담당한 역할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구연동화 활동 양상과 하이가

자화자찬(自畫自讚)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제 일을 제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이 말은 동양화에서 유래한 말인데, 동양화에서는 자기가 그린 그림(畫)에 글(贊)을 곁들여 써 넣는 것을 자화자찬(自畫自贊) 또는 자화찬(自畫贊)이라고 한다. 자화찬의 일종으로서, 그림을 먼저 그린 후 하이구를 써 넣으면 그 그림을 하이가(俳画)라고 부른다. 마쓰오 바쇼(松尾芭蕉), 요사 부손(与謝蕪村), 고바야시 잇사(小林一茶) 등 많은 하이진(俳人)들이 하이가를 남겼다. 하이진으로 명성이 높았던 사자나미도 하이가를 잘 그렸고 또 즐겨 그렸다. 사자나미의 아들(巖谷大四)이 남긴 기록(『波の聲音』新潮社, 1974)에 의하면, 사자나미는 1년 중 절반 이상을 구연동화 활동을 위해 집을 비웠는데, 집에 있을 때에는 반드시 오전에 하이가를 그렸다고 한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렸기 때문에 한 장을 그리는 데 30초도 걸리지 않았고, 한 그림에 다섯 가지 정도의 색상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자나미는 구연동화 공연을 위해 각 지역별로 일정을 관리하는 전문 매니저가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쉴 새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활동을 펼쳐나갔다. 그런데 사자나미의 하이가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자 “하이가 열점에 동화 구연 두 군데³⁾”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가는 곳마다 하이가 요청이 쇄도하였다. 지방 공연 일정이 잡히면 미리 하이가 주문을

2) ‘아동’이나 ‘아동 문학’이라는 일반적인 개념도 없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예 작품을 일컫는 통일된 명칭도 존재하지 않던 메이지 시대에, 사자나미는 무로마치시대의 오토기조시(お伽草子)라는 고전 문학의 장르 이름에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의미를 새로이 부여하여 ‘오토기바나시(お伽噺)’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아카이 토리(赤い鳥)』(1918)를 통해 ‘동화’라는 용어가 보편화될 때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예 작품을 일컫는 용어로 ‘오토기바나시’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사자나미가 일본아동문학사에 남긴 업적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오토기바나시(お伽噺)’라는 말에 연관 지어, 본고에서는 동화를 그린 사자나미의 하이가를 ‘오토기하이가(お伽俳画)’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3) 内村憲尚(1972)『日本口演童話史』博文社, p.13

받아 예약 판매 또는 현지 판매를 할 정도였다. 예를 들어 1923년 4월 27일자를 시작으로 『경성일보(京城日報)』는 사자나미의 구연동화회가 조선 전국에서 개최됨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4월 31일에는 「하이가, 희망자에게 반포(俳画, 希望者に頒布)」라는 광고를 게재했다. 사자나미의 조선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경성일보사가 반포회(頒布會)를 기획한다는 취지와, 작품은 견본(絹本, 비단 천에 그린 서화) 한 폭에 15엔⁴⁾, 지본(紙本, 종이에 그린 서화) 한 폭에 10엔이라는 가격을 명시했다. 그리고 5월 31일에는, 단 한번 하이가 반포 광고를 내었을 뿐인데 굉장한 인기로 신청이 쇄도하여, 견본(絹本) 주문은 조금 더 신청을 받았으나 지본(紙本)은 이제 신청을 사절하겠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다. 또한 5월에 실시한 규슈(九州) 순회공연 때 가고시마시(鹿児島市)에서는 하이가 주문이 몰려들어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600장의 하이를 그린 사실을 보도하는 등, 사자나미가 조선을 방문하기까지는 아직 20일이나 더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기사가 연일 이어졌다. 사자나미가 경성에 도착할 때까지 경성일보지상에는 총 16회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6월 25일, 사자나미가 경성에 도착했다. 6월 27일에는 『경성일보(京城日報)』의 한 지면에 사자나미 관련 기사가 4건이나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높은 관심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그러도 그러도 다 그리지 못하는 하이가(描いても描いても描き切れぬ俳画)”라던가 “닥치는 대로 팔리고 그러고도 계속 신청이 이어짐(片っ端から飛んでゆく尚続々申込がある)”과 같은 헤드라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일 사자나미의 하이가가 화제가 되었다. 사자나미는 경성에 도착하자마자 이틀간, 구연동화 공연 후 심야까지 여관에서 하이를 그렸다.

단체 신청은 선착순으로 평양에 60폭, 신의주에 30폭, 6월 26일에 배송되었으며 그 외의 시내 및 각 지역 단체나 개인이 신청한 건 신청한 순서대로 배송할 예정임이 보도되었다. 개인 신청이 이어진 탓에 시내 접수는 6월 23일자로 일단 마감되었다. 조선 각지를 순회한 사자나미는 7월 11일에 대구에 도착했다. 대구좌(大邱座)에서 4회 공연을 한 뒤 다음날도 대구 공연이 이어졌다. 이 날은 대구고등여학교 공연이 정오에 끝난 뒤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여관에서 하이를 그렸다. 이 대구 여관에서 3시간 동안 100장의 하이를 그린 일이 『경성일보(京城日報)』(1923.7.20.)에 대서특필되었다. 2분에 한 장을 그러도 3시간동안에는 90장밖에 그릴 수 없다. 즉 사자나미가 하이를 그리는데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날 마산, 진해를 순회한 사자나미는 동래의 나루토 여관(鳴戸旅館)에 여장을 풀었다. 그 여관의 여자 종업원이 사자나미의 시중을 들었는데, 다 그린 작품을 말리기 위해 종이를

4) 당시의 15엔은 현재의 화폐 가치로 6만엔 정도임.

펼쳐놓는 것보다 사자나미가 그려내는 속도가 더 빨라 너무 힘들다며 땀범벅이 되어 인터뷰한 내용도 기사화 되었다.⁵⁾ 나루토 여관에서 조선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낸 사자나미는 부산을 순회한 뒤 일본으로 돌아갔다. 사자나미가 조선을 떠난 후에도 하이가 신청은 이어졌다. 그래서 7월 15일 부산에서는, ‘사자나미 선생님 하이가 진열회(小波先生俳画陳列會)’가 개최되어 하이가를 반포(頒布)했다. 1930년에 실시한 조선 구연여행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하이가 반포회가 개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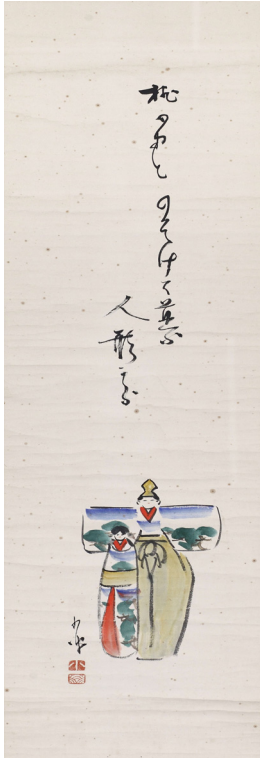
이와 같은 조선 구연동화 활동 양상을 통해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사자나미의 구연동화 활동에 있어서 ‘하이가(俳画)’라는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다. 자칫하면 아동이라는 대상에 국한되기 쉬운 구연동화 활동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하이가라는 요소는 그 활동 영역을 대중적으로 넓혀 가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강연료를 받지 않고 ‘하이가반포회(俳画頒布會)’라는 형식을 통해 하이가를 예약 판매 또는 현지 판매 한 활동 스타일도 사자나미만의 고유한 방식이었다. 이는 사자나미의 하이가가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면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사자나미의 하이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일반 하이가(一般俳画)와 오토기하이가(お伽俳画)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3. 일반 하이가(一般俳画)

3.1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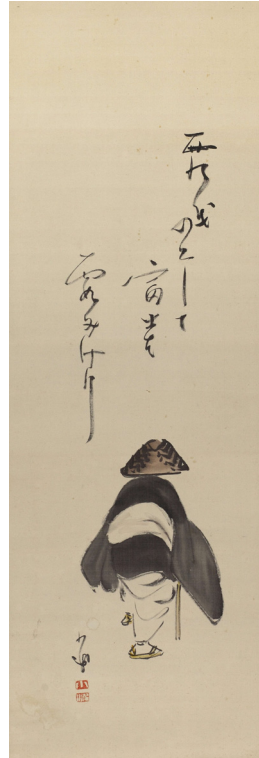
삼월 삼짇날(3월 3일)을 일본에서는 히나마쓰리(ひな祭り)라고 한다. 히나마쓰리 1~2주 전부터 어린 딸을 둔 가정에서는 딸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집 안에 hina 인형과 더불어 그 외 특별한 장식을 한다. 3월 3일은 매화꽃이 지고 복숭아꽃이 피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복숭아 명절(桃の節句)’, 또는 ‘여자의 명절(女の節句)’이라고도 부른다. 다치미나(立ち雛, 서 있는 hina 인형)를 그린 작품 [1]은, 복숭아 명절이라 불리는 히나마쓰리 시기에 어느 가정집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hina 인형이 장식되어 있음을 노래했다. 계어(季語, 계절을 상징하는 시어)는 인형(雛人形, hina인형)이다.

5) 『경성일보(京城日報)』1923년 7월 21일



[1]

桃のまとのそけは並ふ 人形か奈⁶⁾
복숭아창을/ 옛보니 줄지어 선/ 히나인형아



[2]

西行越 のこして富士は 霞みけり
사이교 법사/ 남겨두고 후지는/ 봄 안개 졌네

작품 [2]는 후지산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사이교 법사(西行法師, 1118~1190, 일본 전역을 떠돌며 불도를 수행하고 와카를 지은 방랑 시인)를 그리고, ‘사이교 법사 / 남겨두고 후지는 / 봄 안개 졌네(西行越 のこして富士は 霞みけり)’ 라고 노래했다. 봄 안개가 자욱하게 끼서 사이교 법사만 보일 뿐, 사이교 법사가 향하고 있는 후지산은 희미하여 보이지 않는다. 17자의 짧은 글에 담긴 하이쿠는 읽는 이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상상하게 한다. 간결한 하이기는 그리지 않고 보여준다. 하이쿠와 하이가가 어우러져서 그리지 않은 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단순히 보자면 사이교 법사가 걸어가는 뒷모습만 눈에 들어오지만, 그 앞에는 커다란 후지산이 자리 잡고 있음을 하이쿠를 통해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6) 본고에서는 22점의 하이쿠를 해독하여 인쇄체 일본어로 표기하였는데, 이 해독 작업은 이와야 사자나미의 유족과 고문서를 읽는 모임(藤香會), 여러 하이진(俳人)분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것임을 밝혀둔다.

3.2 여름

푸른 벽오동나무(靑桐, 아오기리)와 날아오르는 매미를 그린 작품 [3]에는 여름을 나타내는 계어(季語)이기도 한 ‘물 뿌리기(水打ち)’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물을 뿌리고 / 정원에서 손님을 / 시원케 하네(水打つて 庭から客越 清しけり)’라고 노래했다. 더운 여름날 도쿄노마(床の間)에 걸어두고 바라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선사해 줄 것 같은 작품이다.



[3]

水打つて 庭から客越 清しけり
물을 뿌리고/ 정원에서 손님들/ 시원케 하네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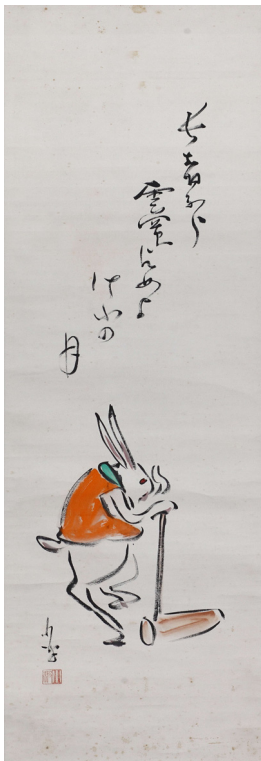
禪堂に 動久物あり (カタツムリ)
조용한 선당/ 움직이는 이 있네(달팽이구나)

작품 [4]는 달팽이를 그렸다. 선당에서 수행승들이 다리를 들고 앉아 참선을 하고 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이 고요하다. 달팽이 한 마리가 천천히 기어가는 움직임조차 크게 느껴질

7) 본문의 전 하이쿠 번역은 필자에 의한 것임.

정도로 선당이 고요함을 노래했다. 하이쿠에는, ‘조용한 선당 움직이는 이 있네’라고 쓸 뿐 ‘달팽이’라는 시어는 일부러 써 넣지 않고 그림으로 표현했다. 일종의 수수께끼 그림(判じ絵, 문자나 그림에 어떤 의미를 숨겨두고 그것을 알아맞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쿠와 하이가가 어우러져서 완성도 높은 예술품이 탄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3.3 가을



[5]

長者奈ら 雲買占めよ けふの月
큰 부자라면/ 저 구름 다 사시게/ 오늘밤 달님



[6]

苦力ハ 路に眠りて 秋の蠅
중국 일꾼은/ 길에서 조는구나/ 가을 파리아

어느 밤, 사자나미가 달구경에 나섰다. 그런데 구름이 잔뜩 끼어 달이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사자나미는 “어디 대단한 부자가 있다면 저 구름 좀 다 사서 걸어 주시게. 그리하여 내가 오늘 밤 저 달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게”라고 노래했다. 하이가로 떡방아를 찧고 있는 토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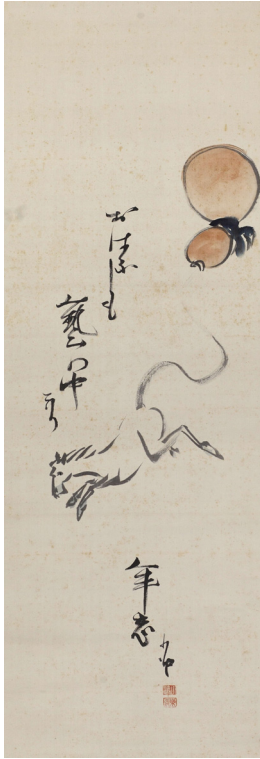
그림으로써 사자나미가 보고 싶은 달이 보름달임을 알려준다. 작품 [5]는 달이 보이지 않는 실망스러움을 재치 있고 밝게 표현한 작품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집꾼이나 광부, 인력거꾼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중국과 인도의 노동자들을 가리켜서 외국인들은 쿨리(苦力)라고 불렀다. 사자나미는 1913년 9월 29일부터 같은 해 10월 30일까지 처음으로 만주 조선 구연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을 하며 지은 69수의 하이쿠를 모아 같은 해 12월, 「만선 하이쿠 여행 가우모아라우카(滿鮮句行かうもあらうか)」(『文章世界』12호, 博文館)를 발표했다. 이 하이쿠 기행문은 1921년에 출간한 『산에서 바다·하이미 기행(山から海・俳味紀行)』(博文館, 1921)에도 수록되었다. 그 속에 작품 [6]의 하이쿠가 있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작품 [6]은 1913년 10월 6일 오후, 만주의 잉커우(營口)소학교에서 구연동화를 공연을 끝낸 사자나미가 잉커우 시장을 구경하며 지은 하이쿠이다. 당나귀 한 마리를 그림으로써 이 당나귀를 끌고 갔을 쿨리를 연상케 하는 가운데, 가을 파리 마냥 기운 없이 시장 길가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쿨리를 노래했다.

3.4 겨울

일본 속담에 “표주박에서 말이 나온다(瓢箪から駒が出る)”라는 말이 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나타낸 속담이다. 표주박의 작은 입에서 말이 튀어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황당무계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 할아버지’인 사자나미는, 구연동화 행위를 예술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연말 망년회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 [7]은 그러한 구연동화에 대한 사자나미의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작품 [8]은 일본의 설날 풍경을 노래한 작품이다. 일본은 설날에 집 대문 양쪽에 가도마쓰(門松)라고 하는, 소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장식을 놓아둔다. 1월 1일부터 7일 또는 15일까지 가도마쓰를 세워 두기 때문에 ‘마쓰노 우치(松の内)’란 ‘가도마쓰를 세워두는 기간’이라는 뜻으로 설날을 의미한다. 설날에는 사자탈을 쓴 사람들이 온 동네를 돌며 대문 앞에서 사자춤을 춘다. 이 춤에는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연륜이 필요한 사자춤은 숙련된 어른들이 추게 된다. 사자춤을 추며 온 동네를 돌아 보면 가는 곳마다 술을 한 잔씩 부어주니 사자탈을 쓴 할아버지는 설날 내내 술에 취해 있기 마련이다. 사자탈을 쓴 할아버지를 그린 작품 [8]은 그러한 일본의 흥겨운 설날 풍경을 노래했다. 계어(季語)는 마쓰노 우치(松の内)이다.



[7]

おは奈しも 藝の中なり 年忘
구연동화도/ 예술의 하나라네/ 연말 망년회



[8]

気に入りの 爺ハ酔ふたり 松之内
할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도다/ 설쇠는 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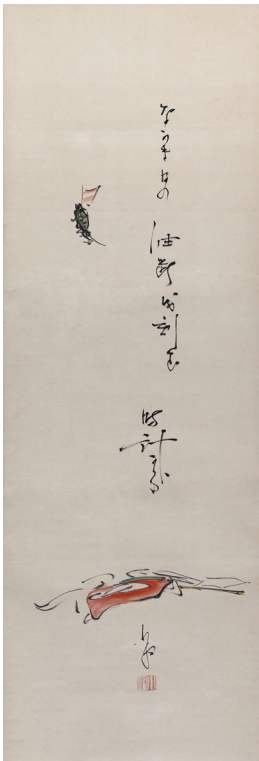
4. 오토기 하이가(お伽俳画)

4.1 이습우화와 전설

다음 페이지의 작품 [9]는 「토끼와 거북이」를 그렸다. 한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이습 우화가 일본 전통 문예인 하이쿠와 하이가가 되어 족자에 걸려 있다는 게 참으로 신선하게 느껴진 작품이다. 주황색 조끼를 입고 한 손을 긴 귀 밑에 받친 채 옆으로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 토끼, 그리고 저 멀리 거북이가 뒷발을 손에 든 모습이 보인다. 거북이가 결승점에 먼저 도착한 순간이다. ‘기나긴 하루 방심한 시간 재는 시계로구나’라는 하이쿠를

통해, 이제 곧 낮잠에서 깨어난 토끼가 당황할 모습이 떠올라 빙그레 미소 짓게 만드는 작품이다. 계어(季語)는 기나긴 하루(ながき日)로 봄을 노래했다.

일본인에게 친숙한 날개 옷 전설(羽衣伝説)은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와 흡사한데, 아래의 작품 [10]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선녀를 그렸다. 가을을 느끼게 하는 시원한 바람이 간간이 불어오는 늦여름의 어느 날, 푸른 소나무 위에 천 조각이 걸려 있다. 그것을 본 사자나미는 선녀가 잃어버린 날개옷을 노래했다. 구연동화 활동을 위해 일본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닌 사자나미는 구비 설화를 수집하여 『대어원(大語園)』(전9권, 平凡社, 1935)이라는 설화 대사전을 편찬했다. 『대어원(大語園)』에는 조선, 중국, 인도, 일본의 설화 8300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속에 「조선의 전설, 날개 옷」(제7권)이라는 제목으로 「선녀와 나무꾼」이 소개되었다.



[9]

ながき日の 油断越刻む 時計か奈
기나긴 하루/ 방심한 시간 재는/ 시계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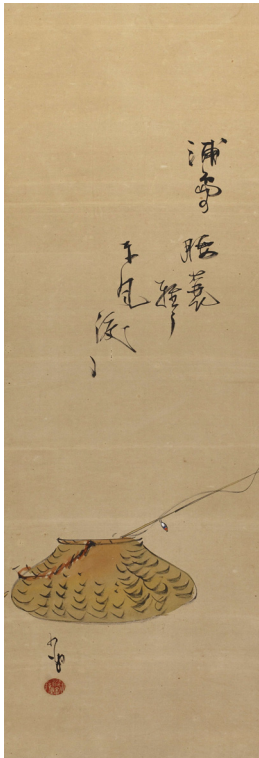


[10]

青東風や 松二天女の 忘れも乃
여름 바람아/ 소나무에 선녀가 잃어버린 것

4.2 일본 옛날이야기(日本昔噺)

사자나미는 1894년 7월부터 1896년 8월까지 『일본 옛날이야기(日本昔噺)』(博文館) 시리즈를 출판하였다. 일본 최초의, 개인에 의한 아동 문학 총서였다. 이 시리즈를 24권으로 매듭지은 후에는 『일본 동화(日本お伽噺)』(博文館, 1896~1899) 시리즈 24권, 『세계 동화(世界お伽噺)』(博文館, 1899~1908) 시리즈 100권, 『세계 동화 문고(世界お伽文庫)』(博文館, 1908~1915) 시리즈 50권을 연이어 출판했다. 일본에서 전해 내려오던 옛날이야기들을 수집하여 동화의 형태로 새롭게 재구성한 뒤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은 사자나미가 일본 아동문학의 역사에 기여한, 돋보이는 업적이다. 사자나미가 동화책으로 쓰고 또 아이들에게 구연동화로 들려주던 일본 옛날이야기를 하이가(俳画)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겠다.



[11]

浦島の 腰蓑輕し 東風渡る
우라시마의/ 도롱이 가볍도다/ 봄바람 부네



[12]

龜の背や 萬里長閑ニ 和田の原
거북이 등아/ 만리 화창하구나/ 드넓은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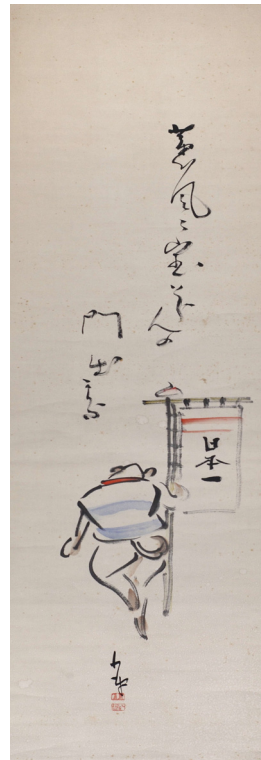
작품 [11]과 [12]는 사자나미가 『일본 옛날이야기(日本昔噺)』(博文館, 1896. 2) 제 18편으로 발표했던 우라시마타로(浦島太郎) 이야기이다. 작품 [11]은 어부인 우라시마타로를 상징하는 고기 바구니와 낚싯대를 그리고, 우라시마타로를 노래한 구를 걸들임으로써 우라시마타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기분 좋게 걷는 우라시마타로의 도롱이가 살랑살랑 흔들린다고 상상했다. 사자나미가 일상의 매 순간을 옛날이야기와 연관 지어 하이가로 표현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계어(季語)는 봄바람(東風)이다.

작품 [12]는 우장용(雨裝用) 도롱이를 허리에 걸치고 낚싯대를 어깨에 맨 우라시마타로가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거북이 등아 만리 화창하구나 드넓은 바다’라는 하이쿠를 통해, 이 우라시마타로가 거북이 등을 타고 드넓은 바다로 나가 용궁으로 가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계어(季語)는 봄을 나타내는 화창(長閑)이다.



[13]

鬼ニ泣く 子にはやるまい かしハ餅
귀신 무서워/ 우는 아이에게는/ 안 주는 찰떡



[14]

薰風ニ 宝とらんの 門出カ奈
여름 바람에/ 보물 찾으러 가는/ 출발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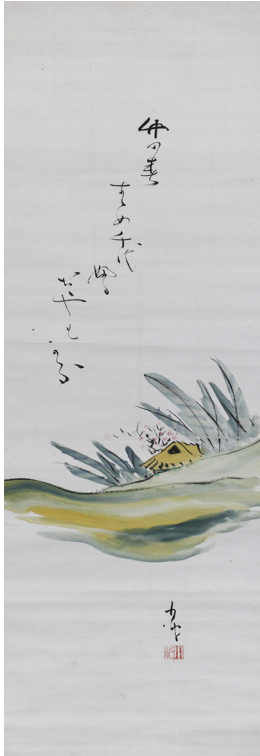
모모타로를 그린 작품 [13]은, 귀신이 무섭다고 우는 아이에게는 찰떡을 안 준다고 노래했다. 사자나미의 익살스러움이 재미있게 녹아 든 작품이다. 이 하이쿠에 나오는 찰떡은 팔소를 넣고 떡갈나무 잎에 썬 가시와 모치(柏餅)인데, 오월 단옷날에 먹는 떡으로 유명하다. 가시와 모치는 여름을 나타내는 계어로 쓰인다. 그리고 작품 [14]는 ‘일본 제일(日本一)’이라고 쓰여 있는 깃발을 오른쪽에 들고 모모타로를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듯한 개의 뒷모습을 그렸다. 끈게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충직함이 엿보인다.

모모타로 이야기는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1894년 7월 16일, 『일본 옛날이야기(日本昔噺)』(博文館) 시리즈 제 1편으로 출간되었다. 그 초판 내용을 보면 시대상을 반영한 듯 천황의 아들인 모모타로가 황국의 안녕을 위해 출진해서 훌륭하게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온다는 줄거리로, 시국 상황을 노골적으로 반영했다. 1908년 개정판을 통해 사자나미는 ‘천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문장도 대폭 수정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낙천적인 모모타로상을 탄생시켰다. 모모타로가 국경교과서에 게재되면서 군국주의의 표상으로 전락해 가자, 사자나미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기도 했다. 사자나미는 “모모타로가 싸운 상대는 사람이 아닌 도깨비”임을 강조하고 “애국심이 아닌 모험심에 중점을 두고 읽혀야 하는 이야기”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모모타로 이야기를 가장 이상적인 옛날이야기로 꼽은 사자나미는, 자신의 아동교육관을 ‘모모타로주의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모모타로처럼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밝고 진취적인 아이로 키우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그러한 자신의 아동교육관을 담은 『모모타로주의 교육(桃太郎主義の教育)』(東亜堂書房, 1915)이라는 저서도 펴냈다.

다음 페이지에 소개하는 작품 [15]와 [16]은 혀 잘린 참새(舌切雀) 이야기이다. ‘대나무의 봄(竹の春)’이라는 계어(季語)를 보면 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나무는 다른 식물과는 달리 가을에 싹이 나서 봄에 잎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하이쿠에서는 ‘대나무의 봄(竹の春)’이 가을을 상징하는 계어로 사용된다.

작품 [15]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발견한 자그마한 참새 집을 그렸다. 참새 집이 천년만년 편안하기를 기원한 이 하이쿠는 일본 각지의 많은 료칸(福岡県 久留米市の 和中彩まるか, 群馬県 軽井沢東磯部温泉 등)에 걸려있다. 참새 집처럼 료칸이 천년만년 번창하기를 기원한, 길한 하이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 [16]은 참새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할아버지를 그렸다. 금은보화가 가득 든 껌작을 등에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경쾌하다. 혀 잘린 참새가 걱정이 되어 찾아갔지만 건강한 모습의 참새를 만났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그 마음이 하이가(俳画)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온다.



[15]

竹の春 すゝめ千代婦る おやかか奈
대나무의 봄/ 참새도 천년만년/ 사는 집이네



[16]

竹の春 すゝめ千代経る お宿か奈
대나무의 봄/ 참새도 천년만년/ 사는 집이네

작품 [17]과 [18]은, 사자나미가 『일본 옛날이야기(日本昔噺)』 제20편(博文館, 1896.4)으로 발표했던 긴타로(金太郎)와 『사자나미 동화 전집(小波お伽全集)』(제11권, 千里閣, 1930.8)에 수록했던 가구야 공주(かぐや姫) 이야기이다. 먼저 작품 [17]은 긴타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도끼(まさかり)를 그렸다. ‘가을 하늘은 높고 곰보다 살찐 긴타로구나’라는 구와 함께 그려진 도끼 그림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건강한 긴타로를 연상하게 한다. 아이들이 긴타로 처럼 건강하게 성장할 것을 염원한 작품이다.

작품 [18]은 반짝반짝 빛나는 대나무 속에서 달빛 이슬이 조릿대(산죽) 보석으로 깃든 것 마냥 작고 예쁜 여자 아이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그렸다. 계어는 달빛 이슬(月の露)로, 가을을 노래했다.



[17]

秋高し 熊より肥えた 金太郎
가을 하늘은/ 높고 곰보다 살찐/ 긴타로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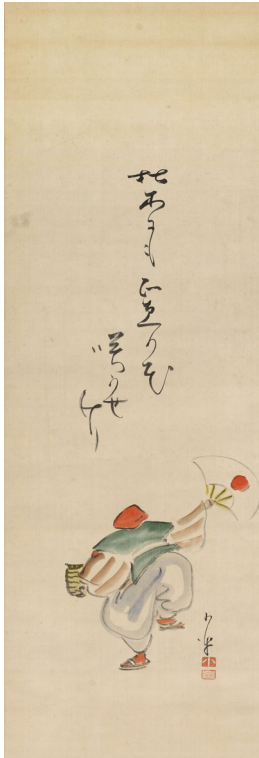
[18]

月の露 小笹の玉と 宿りけり
달빛 이슬이/ 조릿대 보석으로/ 깃들었구나

작품 [19]는 짙부채를 오른손에, 소쿠리를 왼손에 들고 춤을 추고 있는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를 그렸다. 이 할아버지가 손에 든 소쿠리에는 불에 탄 절구의 재가 가득 담겨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애견 시로(しろ)를 애도하며 죽은 나무에 재를 뿌리면 신기하게도 죽은 나무에는 벚꽃과 매화꽃이 활짝 필 것이다.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운 할아버지(花咲翁)’라는 이야기가 주는 ‘정직’이라는 교훈을, 시어로서 하이쿠에 담고 있다.

작품 [20]은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한 관동 대지진 이후에 그려졌는데 일종의 사자나미식 응원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바지의 초록색 줄무늬는 푸른 소나무를 연상시킨다. 사자나미가 쓴 ‘죽은 나무에 꽃을 피운 할아버지’(『일본 옛날이야기(日本昔噺)』 제5편, 博文館, 1896.12)를 읽어 보면, 한 그루의 나무가 절구가 되고 그 절구가 재로 변했다가 마지막에 꽃을 피운다. 즉 작품 [20]은, 40만 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대지진으로 인해 잿더미

로 변한 도쿄가 다시 활짝 꽃을 피우듯 번창하기를 염원한 작품이다. 할아버지가 왼손에 들고 있는 소쿠리에는 넘칠 듯이 가득 담긴 하얀 재가 보인다. 그리고 활짝 펼친 오른손은 할아버지가 힘차게 재를 뿌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계어는 죽은 나무(枯れ木)로, 겨울이다.



[19]

枯木にも 正直の花 咲かせけり
죽은 나무에/ 정직이라는 꽃을/ 피우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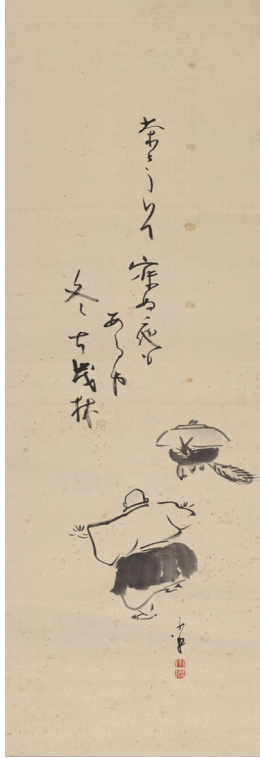


[20]

枯木にも 復興の花 佐かせけり
죽은 나무에/ 부흥이라는 꽃을/ 피우는구나

마지막으로 작품 [21]과 [22]는 『일본 옛날이야기(日本昔噺)』의 제12편(博文館, 1895.4)과 제11편(博文館, 1895.7)으로 출판되었던 분부쿠 차 숯(文福茶釜)이야기와 모노구사타로(物臭太郎) 이야기이다. 작품 [21]은 차 숯 밖으로 얼굴을 빼꼼이 내밀고 정면을 보고 서 있는 너구리 분부쿠와 그런 분부쿠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스님을 그렸다. 겨울 코모리(古茂林)라는 시어에 사용된 ‘茂林’이라는 글자를 통해 이 스님이 모린사(茂林寺)의 스님임을 말해준다. ‘겨울 코모리(冬籠り)’라는 말의 ‘코모리’와 같은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 분부쿠

차 술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린사’를 연상시키는 ‘古茂林’을 쓰고 ‘코모리’라 읽게 했다.



[21]

茶ニういて 寝ぬ夜もあるや 冬古茂林
다도 즐기며/ 못 자는 밤도 있네/ 겨울 코모리



[22]

物臭太郎 如可にや年ハ 暮んとす
모노구사야/ 어떻게 지내느냐/ 한 해가 가네

작품 [22]는 어느 연말 망년회 자리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껌만 부리는 저희 아들 녀석에게 하이가를 한 점 그려주십시오.”라는 부탁이라도 받았던 것일까? ‘모노구사타로야, 어떻게 지내고 있니? 한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라는 뜻의 하이쿠에 모노구사타로가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 하이가를 그렸다. 마치 천하의 게으름뱅이 모노구사타로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를 짓고 출세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해 주는 것 같다.

4. 나오며

사자나미의 하이가 작품에는 ‘사자나미(小波)’라는 서명과 함께 각양각색의 도장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 ‘동화 사절단(お伽外史)’이라고 새긴 도장이 있다. 국가 간의 외교 교섭을 위해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표자를 외교사절단이라고 하듯이, 오토기바나시(お伽噺, 동화)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구연동화를 공연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자나미 본인 스스로를 ‘동화 사절단(お伽外史)’이라고 자칭한 것이다. 그러한 사자나미에게 ‘하이가(俳画)’라는 요소는, 아동문화 활동 영역을 대중적으로 넓혀 가는데 있어서 하나의 화제성(話題性)을 끊임없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1923년 7월 3일, 사자나미는 평양에서 구연동화 공연을 한 뒤 저녁 7시 야나기야(柳屋) 호텔에서 열린 환영 파티에 참석했다. 저녁 9시 반에 파티가 끝나자, 복심법원장(覆審法院長)이 다가와 “저희 아이가 꼭 선생님 그림을 받아달라고 하는데, 낮잠 자는 도깨비 하이가를 한 점 그려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사자나미가 그 자리에서 하이가를 그려 준 에피소드가 『경성일보(京城日報)』1923년 7월 6일자에 소개되었다. 사자나미의 하이가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사자나미의 하이가가 아이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사자나미가 동화를 하이가로 그렸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옛날이야기, 재미있는 동화를 하이가라는 독창적인 세계로 표현해낸 것이다. 필자가 그 동안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그 어떤 아동문학가나 하이진도 사자나미처럼 오토기 하이가(お伽俳画)를 그리지 않았다. 사자나미가 독보적으로 개척하고 정립시킨 오토기 하이가(お伽俳画)는, 아이들이 알기 쉽도록 재미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연동화 활동을 통해 그가 체득한 표현 방식이 시각적·회화적으로 확장되고, 보다 차원 높은 예술로 승화되어 탄생한 장르임을 알 수 있다.

사자나미의 하이가 작품을 모아 보면 마치 옛날이야기 그림책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 전통 가옥의 객실에는 방의 상좌(上座)에 다다미 한 개 넓이로 바닥을 한층 높게 만든 도코노마(床の間)라는 곳이 있는데, 도코노마의 정면 벽에는 죽자를 걸도록 되어 있고 바닥에는 꽃이나 장식물을 꾸며 놓는다. 에도 시대부터 도코노마는 집 안에서 거의 유일한 장식 공간이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있지만, 라디오나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에는 도코노마에 걸어놓은 죽자를 바라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사자나미의 하이가가 그려진 죽자를 걸어놓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동화의 한 장면이 그려진 하이가를 보며, 17자의 짧은 시가 간결한 그림과 어우러져 만들어내

는 이야기 세계 속에서 상상의 나라를 펼쳤을 것이다.

앞서 예로 든 평양의 복심법원장(覆審法院長)처럼 사자나미에게 어떤 작품을 그려달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이가를 한 점 그려주십시오”라고 막연히 부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면 사자나미는 작품을 의뢰한 상대방을 보고 즉석에서 하이가를 결정하여 그린 뒤 그에 맞는 하이쿠를 곁들였다. 유명인이 팬으로부터 사인을 부탁 받아 그 자리에서 쓱쓱 팬의 이름을 쓰고 좋은 글귀를 곁들여 써 주듯이, 요청에 의해 즉석에서 그려주는 하이쿠 또는 하이가 작품은 즉흥적인 퍼포먼스인 동시에 상대방, 장소, 상황 등을 고려한 위트가 발휘되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었다. 30초 만에 이루어지는 이 소통의 장에서 사자나미와 의뢰인 간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이가는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 많은 것들을 상상하게 하는 즐거움이 있다.

사자나미의 하이가(俳画) 연구는 이제 겨우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하이가를 통해 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작품 발굴에 주력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 김성연(2016)『이와야 사자나미의 하이쿠와 조선』『日本近代學研究』52, 韓國日本近代學會, pp.85-105
 巖谷小波(1894-1896)『日本昔噺』博文館
 _____(1913)『滿鮮句行 かうもあらうか』『文章世界』12號, 博文館, pp.72-78
 _____(1915)『桃太郎主義の教育』東亞堂書房, pp.25-60
 _____(1921)『山から海・俳味紀行』博文館, pp.277-294
 巖谷大四(1974)『波の聲の音』新潮社, p.17
 内村憲尚(1972)『日本口演童話史』博文社, p.13

논문투고일 : 2016년 09월 27일
 심사개시일 : 2016년 10월 18일
 1차 수정일 : 2016년 11월 07일
 2차 수정일 : 2016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6년 11월 15일

< 要 旨 >

이와야 사자나미의 하이가(俳画)

- 구연동화 활동 양상과 하이가의 역할에 대해서 -

김성연

일본에서 처음으로 구연동화 활동을 시작한 이와야 사자나미는 37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구연동화를 하나의 예술 분야로 격상시키고, 그 자신이 평생 구연동화 활동에 종사하였다. 하이진(하이쿠 짓기를 취미나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기도 했던 사자나미는, 구연동화 활동과 더불어 하이쿠(5·7·5의 음수율을 지닌 17자로 된 일본의 짧은 정형시) 활동도 동반해서 펼쳤는데, 특히 하이가(하이쿠를 표현한 간략한 그림)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사자나미의 하이가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사자나미가 동화를 하이가로 그렸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재미있는 동화를 ‘하이가(俳画)’라는 독창적인 세계로 표현해낸 것이다. 필자가 그동안 조사해 온 바에 의하면, 그 어떤 아동문학가나 하이진도 사자나미처럼 오토기하이가(お伽俳画)를 그리지 않았다. 사자나미가 독보적으로 개척하고 정립시킨 오토기하이가(お伽俳画)는 아이들이 알기 쉽도록 재미나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연동화 활동을 통해 그가 체득한 표현 방식이 시각적, 회화적으로 확장되고, 보다 차원 높은 예술로 승화되어 탄생한 장르임을 알 수 있다.

본고는 동화 작품이나 구연동화와 함께 세대를 불문하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사자나미의 하이가 작품에 주목했다. 하이쿠는 한국에도 이미 많이 소개되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하이가가 한국에 소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필자의 소장품 중에서, 먼저 계절을 노래한 일반 하이가 작품 8점을 살펴본 뒤, 동화를 그린 하이가, 즉 오토기하이가(お伽俳画) 14점을 선별해, 총 22점을 분석함으로써, 사자나미의 독창적인 하이가 세계를 발견하고 그의 아동문화 활동에 있어서 ‘하이가(俳画)’라는 매체가 담당한 역할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시도했다.

Iwaya Sazanami's Haiga

- How Sazanami's Haiga influenced Oral Performance activities -

Kim, Sung-Yeon

Iwaya Sazanami, who started and dedicated 37 years of his lifetime to activities of narrating folk tales in Japan, made folklore storytelling become art. Sazanami, who also was a famous Haijin (people who make Haiku as a hobby or work), made Haiku (short poem of Japan made of 17 characters with verse 5, 7, 5) and especially Haiga (simple drawing representing the Haiku) and became popular, meanwhile carrying out folk-tale-narrating activities. Since his Haiga was enjoyed greatly not only by adult but also by children, Sazanami drew Haiga which were inspired by folk tales as well. Those old times, funny folk tales to tell children hence were represented in Haiga, which were considered very creative expression at that time. According to my research, up to now there was only one person - Sazanami - who drew Haiga inspired from folk tales. He pioneered and developed the genre of Otogi Haiga (Folk-tale-inspired-Haiga) on his own, made folk tales become more lively, more interesting and easier to understand for children. Through various activities of folk tale narration, he had mastered the expressions visually and pictorially, that could be considered a new dimension of art.

This paper while features children's fairy tales and folk tales narration, focuses on Sazanami's Haiga which gathered a lot of dear attention. Haiku has been introduced and widely known in Korea already. However, Haiga has been neither heard of nor mentioned, not even once. Therefore, from my collections, I will analyze Sazanami's 22 Haiga works, including 8 drawings which depict the seasons in general, then his other 14 works that related to folk tales(Otogi Haiga). Consequently, we can discover the ingenious world of Haiga that Sazanami created, and discuss the role of Haiga in his folk tale narrating activities.